

2008년 3월 05일-*특주: 바울의 간청.

신약 성경 OUTLINE

- 로마서(71) -

223. 바울의 간청

말씀: 롬 12:1

요절: 롬 12:1

로마서 12-16장까지는 성도의 교리적 실행, 몸의 행실에 대해서 다룹니다. 로마서 이후의 모든 바울 서신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반부의 교리적 부분을 다루고 후반부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한 실행을 다룹니다. 우리는 교리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리적 지식을 배운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철학적, 종교적 진리와 달리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리를 알고 믿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배움(learning)은 언제나 삶(living)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영적 생명(life)은 영적인 삶(lives)을 위해 존재합니다. 새 생명은 새로운 삶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1은 세 번에 걸쳐 강해할 것입니다. 1. **바울의 간청** 2. **너희 몸을 산 제물로** 3. **합당한 섬김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바울의 간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간청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간청을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간청은 부탁이요, 바램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또 다른 명령입니다.

12:1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1). “그러므로”란 말은 모든 것의 결론을 지어주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4번의 매우 중요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로마서 3:20은 정죄의 ‘그러므로’입니다. 온 세상이 유죄요, 저주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5:1은 ‘칭의’의 ‘그러므로’입니다. 8:1은 확신의 ‘그러므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12:1은 헌신의 ‘그러므로’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께로 돌아간다.**”(롬11:35)는 사실을 선포한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크리스천 삶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구원을 기초로 복음에 합당한 삶, 영적인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헌신’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헌신’-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간청합니다. 헌신 없는 성

도의 삶은 육신적인 삶, 패배자의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삶이 세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 하나님을 알되 육신적인 삶, 헌신 후의 영적인 삶이 그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이란 육신이 주체가 되는 삶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가 멋있는가? 뭘가 좋은가? 색깔이 별로네, 냄새가 안 좋군, 맛있다, 맛없다, 분위기가 좋다, 느낌이 어때? 등등의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모든 것이 육신의 감각에 의존하고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감각으로 반응하고, 감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고 교회나 성경 공부에 못나가는 이가 있고, 반대로 너무 추워서 움직이기 싫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느낌이 좋다, 안 좋다고 행동을 결정하는 이도 있습니다. 누구와 뭘 먹기로 했다고 집회를 빠지고, 뭘 보느라고 어떤 일을 못했다는 식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 행동을 결정짓는 대부분이 육신의 감각에 의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덧 성장해서 주의 말씀을 알고 공부하는 것을 즐기게 되고, 성경에서 깨닫는 기쁨을 얻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이룹니다. 신앙 서적이거나 주석서를 읽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즐겨 듣습니다. 신학적 지식을 갖추고 나름대로 가치관도 뚜렷하게 정립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교사를 할 수도 있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속기 쉬운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지극히 혼적인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을 해 버립니다. 누구나 지적 능력과 열정으로 얼마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책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영적이란 증거는 아닙니다. 반면 어떤 이는 지극히 감정적입니다. 눈물을 펄펄 쏟기도 하고, 선교사들이나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현금을 합니다. 눈물을 잘 흘리고, 뜨거운 열정 역시 영적이란 증거는 아닙니다. 이와는 달리 강철 같은 의지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단번에 술, 담배를 끊어 버리고 예전의 삶을 정리해 버립니다. 누가 보아도 놀라운 변화를 보입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로 보이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종교심이 강하거나 신념이 강하거나 의지력이 강한 이들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지성, 감성, 의지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영적 생활을 흉내 내는 일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아가 주체가 된 생활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혼적인 종교 생활은 내면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 평강, 안식이 없습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자신이 높임을 받지 못할 때 낙담하거나 분노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은근히 갈구합니다.

참된 영적 생활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온전히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입니다.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니란 것을 알고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 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입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롬 5:21), 주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며(골3:15),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간청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적인 감각, 혼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아닌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주의 평강, 주의 능력, 주의 성령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은 언제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어떤 일을 한 후에는 내가 아니요, 주의 은혜로다(고전15:10)고 외칩니다. 육신 속에서 살지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오”(빌1:21)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갈2:20)라고 말합니다. 자랑할 때는 주를 자랑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전15:10)라고 말합니다.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에 있게 되면

축복보다는 주님, 감정보다는 말씀, 은사보다는 은혜, 치유보다는 치유자이신 주님, 애씀과 노력 대신 신뢰, 나의 원함보다 주의 뜻, 간구보다는 찬송, 나의 일보다는 그분의 일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나의 만족보다 주님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주님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나의 무엇을 위해 일하지 않고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간청한 것들 가운데 첫째가 헌신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활을 힘입어 우리에게 한 사도 바울의 간청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너희 몸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들리라. 우리 몸은 주님께서 값 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건물(집)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둘째, 나와 함께 힘쓰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와 함께 힘쓰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롬15:30). 성도들은 언제나 사역자들과 함께 힘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늘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특히 목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수고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시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강건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상적인 목자를 원하고 요구하는 분들은 더욱 목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분리와 성별.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롬16:17). 하나 됨, 일치와 성경적 교리인 것과 같이 분리와 성별 역시 성경적 교리입니다.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일치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신학은 아무리 권위있는 학교, 유명한 신학자, 똑똑한 사람의 이론이라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주목하고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 침투하는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주목해야 합니다. 요즘은 성경적 진리가 교회 내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혼전 결혼, 동성애, 이혼, 낙태, 재혼과 같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인권, 남녀평등, 민주주의 등의 사회적 가치가 성경적 교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어떤 세상인데 등등의 말로 성경적 교리를 무력화시키고, 무효화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성경적 진리를 고수하려는 이들이 분리되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청이었습니다.

넷째, 하나가 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으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고전1:10).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요17:11, 21, 22). 바울 역시 성도들이 하나가 되라고 간청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처럼 돈 문제로 다투거나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고소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헐담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성경적 성별이나 분리가 아닌 분열하는 교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상입니다. 초대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내가 요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손두게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빌4:2). 바울은 이들이 하나가 되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분열, 분쟁, 다툼을 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청입니다.

다섯째, 나를 따르라. 이것은 해병대 구호나 지휘자 양성소의 표어가 아닙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전4:16). 바울은 신약 성도들의 본입니다(살후3:9). 바울은 자신이 사슬에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자기와 같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 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행26:29). 그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다 자신과 같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본으로 삼아 자신을 따르기를 바랐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갈4:12a). 목자가 성도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인이 종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나와 같이 되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형제 사랑을 확증하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고후2:8). 이 구절은 용서와 관련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신을 상하게 한 이들에 대해서는 쓴 뿌리를 품고, 되갚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은바 되면 뜨거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게 잘못하고, 죄를 범한 형제라 할지라도 회개할 때 용서하고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형제 사랑을 확증해야 합니다. *엡4:23, 골3:13참조. [서로 친절히 대하여 상냥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하라.](엡4:32). 용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이것이 기준입니다. [누가 누구와 닮을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고](골3:13).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용서가 기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용서를 통해 형제 사랑을 확증하기를 간청했습니다.

일곱째,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大使)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후5:20).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 지간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을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화해의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고후5:18, 19.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하심입니다(엡2:16). 골로새서 1: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음이니라.](골1:20).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골1:22). 주님은 화해 현물입니다(요일2:2, 요일4:10).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평안을 찾고, 기쁨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명상이나 수련, 운동이나 기타 종교적 깨달음 등으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설령 얻었다 해도 그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모든 전도자들의 간청입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후6:1). 불신은 은혜를 모욕거리로 만듭니다. 성도들의 악행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성경을 운운하면서 자신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주님의 귀한 이름이 우리를 통해 모독을 받습니다(롬2:24). 땅에 아래 있는 종들이 주인들을 존경할 자로 여기지 않고 눈가림을 일할 때 주님의 이름은 모독을 받습니다(딤후6:1). 크리스천들이 정직하지 못

하고 탐욕스러울 때 주님의 이름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합니다. 아내가 신중하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지 않으며 자기 남편에게 대들며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모독을 받습니다(딤후2:5).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할 때 주님의 이름은 모독을 받습니다(약2:6-7).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것은 받은 은혜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악을 행하는데 쓰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홉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엡4:1).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딤후2:4).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딤후6:12).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따라 달리도록 부르셨습니다(빌3:14).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쫓대를 향해 달리도록 부르셨습니다(히12:2).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고전7:15),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살전4:7).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벧전2:21, 5:10).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벧전3:9).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니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하심이라.](벧전3:9).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은 어떻게 걷는 것인가?

- ▶ 믿음으로 걷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고후5:7).
- ▶ 성령을 따라 걷는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려 하심이니라.](롬8:4)
- ▶ 조심스럽게 걷는다. [그러나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걷고](엡5:15).
- ▶ 같은 규칙에 따라 걷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빌3:16).
- ▶ 지혜롭게 걷는다. [바깥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걷고 시간을 되찾으라.](골4:5).
- ▶ 정직하게 걷는다.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바깥 사람들을 향하여 정직하게 걷게 하고 또 너희에게 아무 궁핍도 없게 하려 함이라.](살전4:12).
- ▶ 진리 안에서 걷는다. [네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보고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요이1:4).

열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받았은즉 넘치도록 더욱더 그와 같이 하라.](살전4: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히11:6). 구제와 헌물(빌4:18)은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입술의 열매로써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역시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골3:20). 복음을 전하는 것(살전2:4), 죄인이 회개하는 것 역시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라는 것이 바울의 간청입니다.

열두 번째, 구제에 힘쓰라. [너희가 참으로 온 마케도니아의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 이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간청하노니 더욱더 많이 하고](살전4:10). 바울은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서 ‘더욱더 많이 하라’고 간청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며(행20:35),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열세 번째, 사역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성도 간에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살전5:12-13).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 것이니라.](딤후3:17)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17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점을 ‘간청’합니다.

성도들은 목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 ▶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살전5:13).
- ▶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딤후3:17).
- ▶ 순종하고 너희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라(히13:17, 벰전5:5).
- ▶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갈6:6).

열네 번째, 주의 재림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불안 해 하지 말라.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나 하는 서신으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살후2:1-2). 재림 신앙은 복된 소망입니다. 영광스런 소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림의 소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바울의 간청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의 간청 한 가지씩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고 합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벰전5:1).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간청했습니다. [부인이여, 이제 네게 간청하노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내가 새 명령을 쓰듯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노라.](요이1:5).

간청이란 상대방이 받아 들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한 이런 간청들에 귀를 막아 버린다면 우리는 그를 무시해 버리는 것이요, 모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바울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준 이런 권면을 주의 명령들(고전14:37)로 알아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알지니라.](고전14:37). 처음에 우리는 어떤 자가 영적인 사람이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주의 명령으로 받고, 믿음으로 결합하는 이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